

박종화와 이광수, ‘임진란’과 역사소설의 시계열화(時系列化)*

공임순**

차례

1. 박종화와 이광수, 한국 역사소설의 두 표본
2. ‘민족(주의)문학’과 역사소설의 재가치화
3. ‘임진란’의 변주와 역사소설의 현재적 이념정치
4. 역사소설의 변치 않은 대중적 호소력과 과거 해석 및 전유의 욕망들-결론을 대신하며

국문초록

이 글은 박종화와 이광수를 비교·분석할 근거로 박종화가 지닌 역할에 일차적으로 주목했다. 왜냐하면 박종화는 이광수의 복권에 교량 역할을 담당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역사소설의 재가치화로 뒷받침했기 때문이다. 1956년 피랍(납북) 문제가 불거지며 이광수가 반공의 상징으로 부상하게 되는 결정적인 장면은 그때까지 이광수 복권에 수동적이었던 문학(화)인들을 전면에 나서게 했다. 이 결실이 바로 1962년 삼중당의 ‘이광수전집’으로, 박종화는 편집위원으로 참여해 민족(주의)문학의 관점에서 그의 역사소설을 고평함으로써 이광수 복권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 글은 인간 이광수의 결함을 상쇄하고 작가 이광수를 구원하는 방편이 되고 있는 박종화의 ‘민족(주의)문학’과 역사소설의 문제적 상관성을 규명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이 글은 2장에서 박종화의 민족(주의)문학이 국가(민)와 결부된 ‘민족문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6S1A5A2A01026243).

** 서강대학교

제'의 부단한 재구성의 현상이 되고 있음을 살폈다. 이 과정에서 한국전쟁이 끝난 직후에 발표된 『임진왜란』이 논의의 초점이 되었다. 역사소설가로 그의 첫걸음을 떼게 한 것이 '임진란'이었다는 그의 언급은 『임진왜란』을 민족(주의)문학과 역사소설의 문체적 상관성을 고찰할 주된 참조대상으로 삼게 했기 때문이다. 2장의 논의를 거쳐 이 글은 3장에서 그가 불러낸 '임진란'의 특정한 시계열화가 역사소설의 현재적 이념정치로 작동하게 되는 양상을 구체적으로 짚어보았다. 이광수의 『이순신』을 우회하며 무려 3여년에 걸쳐 연재된 박종화의 『임진왜란』은 역사소설이 무시간적인 과거의 전통이나 역사의 재현이 아니라 현재의 우리 욕망의 투사이자 그 반영임을 드러내준다. 4장은 이를 결론 삼아 제시했다.

- ▶ 주제어: 박종화, 이광수 복권, 민족문제, 민족(주의)문학, 역사소설, '임진란', 『임진왜란』, 『이순신』, 현재적 이념정치

1. 박종화와 이광수, 한국 역사소설의 두 표본

박종화와 이광수가 한국문학사의 대표적인 두 역사소설가임은 부인할 수 없다. 이들의 출발 자체가 역사소설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들의 전성기를 견인했던 것이 '역사소설'이라는 점은 공통되기 때문이다. 각기 1892년과 1901년생인 이들은 10여년의 격차를 두고 1900년을 전후한 한국사회의 격동기에 태어나 깊은 한문학적 소양으로 역사소설가로서의 입지와 지위를 다졌다.¹⁾ 이들이

1) 박종화는 자신의 한학적 소양이 10세 이후에 은사인 연파(蓮坡) 이승림 선생에게서 한문을 배운 덕분이며, 자신의 집에 세 들어 있었던 책사(冊肆, 현재의 서점)에서 다방면의 고대소설과 신학문을 접할 수 있었기 때문임을 자서전을 통해 밝힌 바 있다. 박종화의 유복한 집안 환경이 한학과 신학문을 고루 익힐 수 있게 해주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남들에게 뒤지지 않는 지적 역량으로 그는 소학교를 거치지 않고 16세에 휘문의숙에 입학하여 거기서 문학 소년의 꿈을 키워나갔다고 그는 전한다. 그의 이러한 지적 배경과 성장은 이광수와 더불어 그가 대표적인 역사소설가로 성공할 수 있었던 밑바탕이기도 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박종화, 『『백조』 시대와 그 전야』, 『신천지』, 1954.2., 440-448쪽을 참조할

지닌 역사소설가로서의 높은 명성과 지위가 무엇보다 이 두 사람을 비교·분석할 일차적인 근거가 된다.

그럼에도 이는 말 그대로 출발선상일 뿐이다. 이들이 대표적인 역사소설가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 두 사람을 비교·분석할 충분조건은 될 수 없기에 말이다. 가령 역사소설가로서 이 두 사람이 지닌 불변의 위상에도 불구하고, 여타의 조합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다. 그렇다면 굳이 이 두 사람이어야 할 몇 가지 보충 논거나 이유가 뒤따르지 않는 한, 이는 명성과 지위에 기댄 편의적인 선택과 설명에 그칠 우려가 크다.

필자는 2016년 중견연구로 “박종화와 이광수·‘이광수’의 복권을 둘러싼 민족·역사소설의 길항”을 제출한 바 있었다. 이 연구 프로젝트의 제목이 암시하는 것처럼, 이 연구 프로젝트는 1950년대 이광수의 복권이라는 문제와 긴밀하게 연동되어 있는 것이었다. 이광수의 복권은 단지 한국문학사의 차원에 그치지 않는 전 지구적인 냉전과 그 최전선으로서 한국사회의 지역(로컬)적 특수성이 결부된 역사적 ‘장면(scene)’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기저에 깔려 있는 필자의 생각이었다.²⁾ 어떠한 ‘장면’도 역사적 의미나 상징과 무관하게 존재할 수 없다고 하는 이른바 맥락읽기(reading the context)의 관점에서, 이광수의 복권을 둘러싼 제반 관계망은 박종화와 이광수를 동시에 논할 역사적 참조점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여겼던 것이다. 왜냐하면 박종화는 이광수의 복권에 교량 역할을 담당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역사소설의 재가치화로 뒷받침했기 때문이다. 박종화와 이광수를 교차시키는 일종의 노드(node)로서 역사소설의 두드러진 일면이 또한 여기에 있다 할 것이다.

반민특위(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의 발족과 활동으로 최남선과 함께 문

수 있다.

- 2) 역사적 장면(scene)은 개별 행위자의 적극적인 행위와 실천이 개입된 다중 관계망을 이르는 말이다. 특정한 시공간을 배경으로 구축되는 일련의 사건이나 현상은 이 행위자들의 개입과 관여로 역사적 의미망을 띠게 되는데, 이광수의 피랍(납북)에 이은 복권 움직임은 전후 한반도의 냉전을 보다 인간화하는 데 기여하며, 인륜의 휴머니즘적 가치를 냉전의 진영론으로 제조정했다. 필자는 이 맥락을 살려 역사적 ‘장면’을 쓰고 있음을 밝혀둔다.

필가로서는 첫 번째로 체포·구금된 이광수는 식민지시기 간행된 『문장독본』이 국정교과서에서 삭제되는 등, 친일 행적과 관련된 비판과 반발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³⁾ 반민특위가 무력화되고 “죄는 있으나 피동적인 것이었고 또 이보다 공헌이 컸다”⁴⁾는 불기소 의견으로 그가 직접 처벌을 받은 일은 없었다 해도, “건국 선거에 투표하는 날 조국은 나를 용납하여 불렀다. 칠월 십칠일 헌법 공포식 중계방송 듣고 흘린 감격의 눈물로 먹을 갈아 사는 날까지 조국 찬양의 노래를 쓰련다. 그리고 독립국 자유민으로 눈감”⁵⁾기를 꿈꾸었던 신생 대한민국의 자유민으로서 그의 입지는 상당히 좁았던 것도 사실이었다. 이런 그가 피랍(납북)자 송환 문제가 불거진 1956년을 기점으로 악질적인 북한 괴뢰에게 잡혀간 반공의 상징으로 부상하면서, 그의 복권은 친일의 혐의를 압도하며 그 물꼬를 트게 된다.⁶⁾ 이 시기를 전후해 이광수의 복권은 주요한 등 흥사단

-
- 3) 「문교부, 전국 중등학교 교장 회의에서 친일과 교과서 사용금지 등을 지시」, 『조선일보』, 1948.10.11. 문교부가 금지한 교과서는 최남선의 『중등국사』, 『조선 본위 중등동양사』, 『동양 본위 중등 서양사』, 『조선역사 지도』, 『성인 교육 국사 독본』, 『쉽고 빠른 조선역사』, 『국민조선역사』와 이광수의 『문장독본』이었다.
 - 4) 반민특위의 총결산, 『주간서울』, 1949.9.26. 필자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제공한 원문과 『주간서울』의 기사를 상호 대조해본 결과 『반민특위의 총결산』에서 “香山光郎은 왜 불기소가 되었나?”라는 중간제목 아래 “香山光郎은 이렇게 석방운동을 했다”라는 소제목으로 죄는 있으나 피동적이었으며 또 이보다 공헌이 컸다는 말로 그의 불기소 의견서가 첨부되고 석방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민특위의 이광수 불기소 결정은 사유에 대한 논란을 야기하며, 담당검찰관 이의식이 사표를 내는 등의 물의를 빚었다. 하지만 이광수의 불기소 결정은 반민특위가 무력화되는 것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었다. 이광수뿐만 아니라 반민특위의 대상자들 중 실제 처벌된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 5) 이광수, 「나는 독립국 자유민이다」, 『이광수전집』 9, 우신사, 1979, 508쪽. 이와 관련된 논의로는 필자의 『냉전의 유희, 스파이의 비/가시적 신체 형상과 '최초'의 소제/미제 간첩단 사건』, 『한국문학의 연구』 55, 2015에서 미완으로 끝난 이광수의 연재소설 『서울』을 다루면서 언급한 바 있다. 이 시를 쓰는 것과 동시에 그는 사릉을 떠나 서울로 복귀했고, 또한 미완의 장편소설 『서울』을 『태양신문』에도 연재하게 된다. 이 연이은 움직임은 친일의 공격 사면으로 그의 보폭이 넓어졌음을 뜻한다. 미완의 작품 『서울』은 서울로 침투한 중국-북한의 스파이 이야기로 이는 대한민국의 통치이념인 반공과도 결을 같이 하는 것이었다.
 - 6) 반민특위의 불기소 처분 이후 출판사의 발 빠른 영업 행보는 교과서에서 그의 작품이 삭제된 것과 달리 출판시장의 인기를 끌었다. 대중 감성과 소비의 측면에서 논의해볼 지점이 아닐 수 없다. 다만 이러한 대중의 선호와 별개로 그를 공론장으로 불러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은 1954년 제네바회담의 연장선상에서 1956년 국제 적십자사를 통한 피

계열의 요구와 주장을 넘어 대중적인 공감과 반향을 얻을 수 있었음은 물론 더 중요하게는 지금까지 이광수 복권에 수동적이었던 문학(화)인들을 전면에 나설 수 있게 했다는 점이다. 1956년의 결정적인 ‘장면(scene)’은 1962년 삼중당의 총 20권 분량의 ‘이광수전집’으로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되는데, 이 작업에 박종화는 주요한, 백철, 정비석, 박계주와 나란히 편집위원으로 참여하여 힘을 보태게 된다.

‘이광수전집’의 편집위원으로 그가 작품 해설을 남긴 것은 『단종애사』와 『세조대왕』이 함께 수록된 ‘이광수전집’ 제 5권이다. 제 1권 『무정』을 필두로 제 2권 『재생』을 이어 제 5권에 배치된 『단종애사』의 작품 해설에서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그가 이광수의 작품 활동의 정점이자 그 백미(白眉)로 자타 공인의 『무정』과 『재생』이 아닌 역사소설 『단종애사』를 꼽았다는 점이다. 그는 “민족 문학을 옳게 파악한 것이 『단종애사』요, 연령이 원숙기에 들어서 문장과 묘사나 힘이 없는 것이 『단종애사』”임을 강조하며, 상해임시정부의 활동을 접고 허영숙과 귀국한 후 『민족개조론』으로 ‘춘원매장론(埋葬論)’까지 운위되던 그의 명성을 구해낸 것도 그에 따르면, “『마의태자』, 『이순신』과 함께” 『단종애사』의 역사소설이었음을 거듭 주창했던 것이다. 『민족개조론』의 오명과 이후 역사소설을 통한 이광수의 재기는 곧 친일 혐의와 피랍(납북)에 힘입은 그의 복권과 짝을 이루며, 박종화의 ‘민족(주의)문학’을 되비추는 거울상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렇다면 인간 이광수의 결함을 상쇄하고 작가 이광수를 구원하는 방편이 되고 있는 박종화의 ‘민족(주의)문학’이란 과연 무엇이며, 이것이 어찌서 역사소설로 체현될 수 있었는지가 되물어져야 할 지점이다. 이는 필자가 2016년 『춘원연구학보』의 ‘이광수 복권과 문학사 기술의 관련 양상’에서 제기했던 ‘문학적 공과 정치적 과’라고 하는 이광수와 최남선의 문학상을 둘러싸고 전개된 한국사회의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쟁점과도 맞닿아 있을 터이기에 말

랍(납북)자 명단의 교환이라는 사회정치적인 사건을 통해서였다. 이러한 국면 변화와 문학 내적인 역학을 동시에 고려하는 일이 필자가 이야기하는 ‘맥락읽기’의 관점이기도 하다.

7) 박종화, 『작품해설』, 『이광수전집 5』, 삼중당, 1962, 542쪽.

이다.⁸⁾

2. ‘민족(주의)문학’과 역사소설의 재가치화

해방 이후 박종화는 그의 첫 번째 작품 『민족』을 1945년 11월 5일부터 1946년 7월 22일까지 총 205회에 걸쳐 『중앙신문』에 연재했다. 해방 후 그가 첫 포문을 『민족』이라는 작품으로 열었다는 것은 여러 모로 시사적이다. 기존논의에서 『민족』은 일제 말기 『전야』(1940), 『여명』(1943)을 잇는 연작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이러한 연작 시리즈의 마침표로 굳이 ‘민족’이라는 제목을 붙인 것은 해방이라는 시대 상황과 결부되어 심상히 넘겨버릴 수 없는 부분이다.⁹⁾

그는 “아세아 동반구에 중핵(中核) 민족의 자리를 차지했던 대 조선민족은 시운(時運)이 이롭지 못하여 좁스럽고 졸하기 창해바다의 좁쌀만한 섬나라 일본에게 40년 동안 창랑을 잃어버렸고 서른여섯 해 동안의 눈물나는 노예 생활을 해”왔음을 상기시킨다. 탈(脫)식민과 해방이라는 시대 격변을 맞아 좁스럽고 졸한 섬나라 일본에게 아시아의 중핵을 차지하고 있던 대 조선이 잠시 식민지로 전락했다고 하는 재평가가 동반되며, 섬나라 일본과 대비되는 대 조선이

8) 필자는 『이광수 복권과 문학사 기술의 관련 양상』, 『춘원연구학보』 9호, 2016에서, 이광수의 ‘친일행위’는 인정하되 ‘작품’은 분리해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문학적 공과 정치적 과’의 논법이 이광수와 최남선의 문학상 제정을 가능케 하는 동인임을 살펴보았다. 이 쟁점은 문학과 정치 및 그의 사적인 성격과 작품 활동의 공적인 차원이 과연 분리될 수 있는가를 가능하는 한국사회의 변모된 자의식과 깊이 연루되어 있다. 현재 고은의 사례도 이 문제의식과 연동되어 있다고 할 때, 한국사회가 또 한 번의 시험대에 섰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9) 해방 이후 그의 첫 번째 창작이자 신문연재소설로서 『민족』이 지닌 의미는 필자의 논문인 『박종화와 김동리의 자리, “반탁운동의 후예들”과 한국의 우파 문단』, 『사학연구』 121, 2016에서 언급했다. 박종화는 문학인들과의 좌담회에서 “해방 뒤에 바로 붓을 들어 『민족』과 『청춘승리』를 중앙신문과 자유신문에 써서 이 민족의 『생태』를 그려보고자”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50년 전의 민족은 50년 후의 이 민족과 조금도 다른 것이 없”어 “기가 막”힌 심정으로 『민족』을 썼다고 주장함으로써 『민족』이 『전야』(1940)와 『여명』(1943)의 연작으로만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호명되는 형국이다. 이러한 변화된 시대감과 인식은 그가 밝힌 바에 의하면 “문을 닫아걸고 글씨 공부”로 소일한 일제 말기의 침묵을 딛고, 과거 “사십 년 동안 잃어버린 조국(祖國)을 찾기 위하여 꾸준히 불의와 싸워온 우리 민족의 끓는 피, 뛰노는 맥박”을 그¹⁰⁾린다고 하는 “한민족의 항전”¹⁰⁾의 드라마를 『민족』을 통해 펼쳐놓게 했다. 이렇게 해서 해방 이후 그의 첫 번째 작품이 모습을 드러냈던 것이다. 여기서 그는 ‘민족’을 ‘조국’과 교차하는 방식으로 과거 조선 민족의 역사를 조국 상실과 회복에 맞추게 된다. 즉 민족을 조국과 환치 가능한 것으로 만드는 언어 전이에 힘입어 그는 ‘민족’ 개념을 ‘조국’을 저변에 간 일종의 규제 이념으로 작동시키게 되는 것이다.

『중앙신문』의 『민족』 연재에서 엿보이는 이러한 민족과 조국의 환치 가능성은 1947년 같은 제목의 『민족』 단행본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이 단행본의 『서설』에서 그는 “조선민족은 하나요, 둘이 아니”며, “운명을 같이 할 약속”을 한 혈연공동체이자 운명공동체임을 부각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더하여 그는 “신라의 김유신은 제 민족을 안 사람이요, 고구려의 을지문덕은 민족에 곧 조국을 안 사람”이라는 말로 “조국애요, 민족애”¹¹⁾를 동일시한다. 민족=조국의 이러한 등치는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1947년 12월 16일 『문화시보』 창간 때부터 1948년 1월 18일까지 총 18회에 걸쳐 연재된 박종화 원작·안석영 극작의 시나리오 『나라를 찾자』에서도 반복되는 바다.¹²⁾ 조국, 나라, 고국이 언제나 민족과 대체 가능한 것이 됨으로써 그의 ‘민족’ 개념은 조국의 향방과 뒤엎힐 수 밖에 없는 불가분성을 띠게 되는 것이다.

10) 『연재소설 『민족』 5일부터 1면에 연재·작자의 말, 『중앙신문』, 1945.11.4.

11) 박종화, 『서설』, 『월탄 박종화문학전집 6-민족·청춘승리』, 삼경출판사, 1980, 15-17쪽. 『중앙신문』에 연재된 『민족』은 예문각에서 1947년 같은 제목의 단행본으로 발간되었다. 이 단행본의 『서설』은 그의 민족애가 조국애와 합치되고 있음을 뚜렷이 입증하고 있다. 여기서 인용된 출처는 박종화전집의 『민족』임을 밝혀둔다.

12) 김휘열, 『해방기 『문화시보』의 매체적 위치와 의미연구』, 『반교어문연구』 41, 2015를 참조했다. 그는 『문화시보』 창간호 외에 나머지 호들의 소재를 국내에서 찾지 못하다가 U.C 버클리 대학의 동아시아 도서관에서 2개월 분량의 『문화시보』를 확보할 수 있었음을 전하며, 박종화와 안석영의 이 작품을 소개하고 있다.

“조선민족은 하나요, 둘이 아니”라고 그는 외쳤지만, 실상 이 민족의 일체성이란 조국이 하나라는 전제 하에서 가능한 것이었다. 하지만 남북한에 들어선 각기 다른 두 정(치)체의 현존으로 인한 한반도의 양단은 진영 논리를 내장한 채 조국 선택의 갈림길을 강제했다. 이는 ‘조국’ 개념이 남과 북을 통합하는 기표가 될 수 없음을 나아가 ‘조국’ 개념에 정초한 박종화의 ‘민족’ 개념이 지닌 불안정성을 예고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시오카와 노부아키(塩川伸明)가 국가(민)와 민족 사이에는 서로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이것이 완전할 수는 없고 항상 차이가 발생한다고 말했던 균열과 배리가 돌이킬 수 없는 현실로 출현했던 셈이었다. 노부아키는 국가(민)와 민족 간의 “차이를 메우려 하거나 강제로 잘라버리거나 무시하거나 혹은 그것에 반발하거나 하는 등”¹³⁾의 단속적 현상들을 일러 통합의 집단개념인 ‘민족’이 아니라 이를 ‘민족문제’로 접근할 것을 주장하는 한편, ‘민족’의 불안정성과 비균질성을 강조하게 된다. 즉 이른바 자명한 것처럼 여겨지는 ‘민족’은 민족과 국가(민) 간의 균열과 모순을 내장한 때 국면의 ‘민족문제’로 시현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었다. 따라서 박종화가 소여의 사실로 자리매김한 대 조선 ‘민족’은 한반도의 분단이 초래한 국가(민)와 연동하여 ‘민족문제’로 화하며, 그의 민족문학도 이 자장을 선회할 수밖에 없게 했다. 1946년 12월 5일자 『경향신문』의 『민족문학의 원리』는 역사소설을 경유해 이광수 복권을 옹호하게 되는 그의 민족문학이 국가(민)와 결부된 ‘민족문제’와 부단히 교섭하는 재구성의 현장이었음을 알리는 시발점으로서 그 주목에 값한다 하겠다.

작년 팔월 십오일 해방 직후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들 문화인 또는 문인들은 회천(回天)의 기운과 함께 누구나 항상 민족문학의 중건(重建) 또는 건설을 구호로 하며 건국의 일익을 도우려 했다.....일인의 잔인·삼엄한 무단정치 밑에 활화산처럼 터져 일어나 삼천리강산을 피로 물들인 저 장엄·찬란한 삼일

13) 시오카와 노부아키(塩川伸明), 송석원 옮김, 『민족과 네이션』, 이담, 2015, 26쪽.

민족운동은 조선민족이 죽었느냐 살았느냐 하는 판단의 분수령이요, 이 정치적 또는 민족적 현실은 전후로 하여 일어난 우리의 신문예운동은 민족문학 수립의 근간이 되었던 것이다. 이래(邇來) 우리들 문인 또는 문화인들은 음으로 양으로 이 민족주의문학 곧 민족문학 수립에 노력해 왔다.....8월 15일 해방의 소식이 전하자 방방곡곡의 삼천리강산에는 우리의 2세 어린이 입에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는 40년 전의 우리의 입으로 몰래몰래 부르던 애국가가 다시 터져 나오지 않았는가? 이것이 불멸의 민족혼이요, 민족의식이요, 또한 민족문학의 모태가 되는 것이다.

해방 후 오늘의 조선의 상태는 어떠한가. 뽴뽴(遍遍)히 내가 다시 말하지 않더라도 조선민족의 한 사람이곤 가슴을 치지 않을 사람이 없으리라. 가장 민족의식을 고조해야 할 이때이다. 우리의 2세에게 충무공의 소설을 지어 읽혀주자. 우리들의 딸에게 논개로 희곡을 써서 읽혀주자. 오달재, 윤집, 흥익한 삼학사(三學士)의 백절불굴의 의기를 시를 지어 들려주자. 지금 조선민족은 진정한 민족문화 수립이 활발하게 전개되기를 바라고 있다.¹⁴⁾

『중양신문』의 「민족」 연재와 동시기에 그는 위 「민족문학의 원리」를 발표했다. 여기서 그는 “우리들 문인 또는 문화인들은 음으로 양으로 이 민족주의문학 곧 민족문학 수립에 노력”해 왔음을 강조하는 과거 행적을 통한 자기 증명과 함께 ‘민족’문학의 당위성을 “회천(回天)의 기운과 함께 누구나 항상 민족문학의 중건(重建) 또는 건설을 구호로 하며 건국의 일익”으로 분투하고 있다는 현재로까지 연장하고 있다. 과거에도 그러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건국 도상에 일조할 민족문학의 현재적 의미와 가치에 있다는 것이 그의 주된 논지이다. 일제에 저항한 3·1민족운동이 과거 민족문학을 태동시킨 분수령이었듯이, 해방과 건국은 현재의 “민족문학의 중건 또는 건설”의 토대라는 인식의 발로였다.

민족문학은 ‘민족’ 개념의 강력한 견인 속에서, 불굴의 민족혼 및 민족의식

14) 박종화, 「민족문학의 원리」, 『경향신문』, 1946.12.5.

과 동궐에 놓인다. 왜냐하면 식민지 조선의 해방 소식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터져 나온 애국가로 표상되는 자연발생적인 민족 감정이 민족문학뿐만 아니라 불굴의 민족혼과 민족의식을 관통하고 있기 때문이다. 40여년에 걸쳐 일제에 의해 금지되었음에도 “우리들은 차마 우리글 우리말을 뺏길 수 없”어서 “집안에서 안방에서 자리 속에서 우리의 이세(二世)들과 우리말 우리의 역사를 도란거란” 수난과 저항의 공통 심성이 애국가라는 대표 상징을 가로질러 불굴의 민족혼과 민족의식을 민족문학과 동류의 것으로 상정케 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애국가로 표상되는 이 공통 정서와 감정에 기대어 그는 민족의 단일성과 통합성을 자연스럽고 본원적인 것인 양 만드는 담론상의 효력을 발휘케 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민족문학과 동류의 것인 이 불굴의 민족혼과 민족의식이 현재 위기에 처해 있다는 그의 진단이자 해결책이다. 어찌서 이것이 위기에 처했는지는 “뽀뽀(漚漚)히 내가 다시 말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이라는 당대적 감각과 인식을 전제로 그는 이 위기에 처한 민족혼과 민족의식을 구원하기 위한 민족문학의 부흥과 재건을 역설하기에 이른다. 삼천리 방방곡곡을 울리던 애국가의 일치된 목소리가 사라진 지금 조선의 현실은, 민족혼과 민족의식을 고양시킬 민족문학의 재건과 부흥을 긴급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애국가의 자연발생성만으로 충족되지 않는 이 차이와 간극을 그는 민족문학의 부흥과 재건의 발판으로 삼는다. 이를 위해 그는 과거의 특정한 역사를 소구하고 재조직할 것을 주문하게 되는데, 이를테면 우리의 2세에게 들려줄 충무공의 소설과 우리들의 딸에게 읽힐 논개의 희곡 및 오달재, 윤집, 홍익한 삼학사의 백절불굴에 관한 시 등이 그러하다. 현재 위기에 처한 불굴의 민족혼과 민족의식을 구원할 타자로 등장하고 있는 이 특징적인 과거 역사의 시계열화가 “지금 조선민족은 진정한 민족문화 수립이 활발하게 전개되기를 바”란다는 진정한 민족문학과 그렇지 않은 민족문학을 대별하는 동시에 진영 논리를 반복해 가는 과정을 뒤이은 1947년 1월 10일자 『민주일보』의 『조선민족의 현 단계』는 잘 보여주고 있다.

“지금 조선민족은 위급 존망인 찰나에 서 있”으며 “흥하느냐 망하느냐 또다시 굴욕적인 노예가 되느냐 강자의 식민지로 떨어져 버리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는 그의 당면한 위기감은 “우리 민족에 알맞은 우리 국가에 적합한 모든 제도를 수립해서 세계 모든 국가의 수준에 보조를 맞추어 나아가야” 할 것이라는 예의 민족과 국가의 일치를 반박할 수 없는 절대명제로 제출한다. “누가 이 민족의 지상명령을 거부할 것이며 반대할 것인가”라는 그의 언급은 그러나 “조선민족으로 조선(祖先)의 피와 혼을 안아가진 우리들 문학도도 차마 얼굴을 들고 「신탁통치를 내리신 삼상회의의 처분은 지극히 정당하신 노릇이니 달갑게 받으소이다」 하고 양두백배(仰頭百拜)하고 국궁감사(鞠躬感謝)하여 사대정당(事大政黨)의 선전도구가 될 수는 없는 노릇”이라는 말로 진정한 민족문학이 놓인 위치를 보다 선명히 했기 때문이다.

탁치논쟁을 계기로 한 조국 건설에 대한 좌우익의 입장차가 첨예하게 대치하는 상황에서, 민족=조국의 등치에 입각한 그의 민족문학은 찬탁과 그 언저리의 주장들을 날카롭게 베어낸다. “조선민족으로 조선(祖先)의 피와 혼을 안아가진 우리들 문학도”로서는 차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그의 발언에 담긴 찬탁과 그 언저리의 주장들에 대한 철저한 부인이었다. 이는 그의 민족문학이 이미 한쪽을 배제하는 ‘민족문제’로 화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진정한 민족문학과 그렇지 않은 민족문학 간의 분절은 정확히 이 지점을 가로질러 재정립될 것이었다. 「민족문학의 원리」를 이은 「조선문학의 현 단계」는 현재를 반영하는 과거의 특정한 역사로 ‘임진란’을 끌어오게 되는데, “임진왜란을 겪은 선조대왕이 당과싸움으로 해서 임진왜란의 참화를 당한 것을 통곡하고 만(滿) 조정신하(朝廷臣下)는 일치단결이 되라는 것을 강조한 뼈아픈 시”를 원문 그대로 실는 방식으로 말이다. “우리가 지금 다시 한 번 음미해야 할” 과거로서 ‘임진란’은 “우리들 삼천만 동포의 사상을 지도할 문학도들은 일로매진(一路邁進) 동심협력(同心協力)하여 참다운 민족문학 수립의 깃발 아래로 결연히 모여들어야 할”¹⁵⁾ 것이라는 과거 역사를 버팀목으로 한 우익 진영의 결속과 그 세력화로 모아졌음을 위 사례는 방증하고 있다.

조국과 등치된 그의 ‘민족’ 개념과 진정한 민족문학에 함축된 이러한 배타적 위계화는 반대진영의 갈등과 반발을 살 수밖에 없었다. 이를 무엇보다 신랄하게 꼬집은 인물이 경성제대 출신의 중문학자로 경성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있던 이명선이었다. 그는 현 단계 민족문학 수립의 대의와 목적을 공유하면서도, 박종화의 민족문학이 “조선의 현 단계의 민족문학과는 거리가 상당히 먼 것”임을 강조하게 된다. 왜냐하면 조선의 현 단계 민족문학과 달리 박종화의 민족문학은 “근대 민족운동사상의 어느 일 시기에는 해당할 것이나 민족혁명(民族革命)을 추진시키는 토대는 물론 될 수 없고 도리어 민족혁명의 발전을 방해하는 장애물(障礙物)”이 되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 때문이었다. 이명선은 박종화의 민족문학을 빗대어 “편협(偏狹)한 민족주의”는 “반(反)봉건주의의 장애물이 될 뿐만 아니라 반(反)제국주의의 장애물이 됨”으로써 결국 현 단계 “조선의 민족혁명의 정면의 적”이 되고 있음을 부각시켰다. 이 맥락에서 박종화가 진정한 민족문학의 전범으로 삼았던 과거 역사의 특정한 시계열화는 “그가 ‘불멸의 민족혼’을 찾을 때에 우리는 아직도 기억에 새로운 ‘대화혼(大和魂)’이 연상되고 그가 충무공·논개·삼학사(三學士)를 찾을 때에 우리는 이광수의 『단종애사』와 『이순신』 등의 작품이 연상”된다고 하는 비판적 어조로 귀착될 따름이었다.

“국수주의(國粹主義)와 봉건사상의 새로운 일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명선의 혹독한 비난 속에서, 박종화의 민족문학은 현 단계 조선의 민족문학이 “가장 경계하고 배격해야 할 대상”¹⁶⁾ 중의 하나로 간주되었다. 박종화가 진정

15) 박종화, 『조선문학의 현 단계』, 『민주일보』, 1947.1.4.

16) 이명선, 『민족문학과 민족주의문학』, 『신조선』 2, 1947, 33-35쪽. 이광수의 피랍(납북)이 그의 친일협의를 상쇄하는 복권을 정당화했던 것과 달리 박종화와 이광수를 모두 비판했던 이명선의 율복은 그의 생애와 이력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가로막게 된다. 식민지시기 경성제대의 카라시마 다케시(辛島 驍)의 제자였던 그는 해방 후 경성제대 법문학부 자치위원회 위원장(1946)을 지냈고, 서울대 중문과 조교수(1946~1949)를 역임했다. 한국전쟁 직후인 36세에 서울대 총책임자, 즉 총장직에 올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천하가 됐으니 혁명과업을 완수해야 한다”는 실천적 혁명가로서의 면모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희승은 이명선을 전에 공산주의와 무관한 사람인 줄 알고 있었다고 회고하기도 했는데, 1947년 이

한 민족문학의 전례로 꼽았던 과거 역사의 특정한 시계열화가 반혁명과 반동화의 증거로 오롯이 되돌아오는 현상이었다. 더욱이 박종화의 민족문학에 드러난 이광수의 짙은 그림자는 지난 시대의 청산되지 않은 부정적 유제인 파시즘의 ‘대화혼’과 ‘불멸의 민족혼’을 겹쳐 사고하게 했다. 충무공의 소설이나 논개의 희곡 및 삼학사의 시 등은 이 시각에서 보자면, 이광수의 『단종애사』와 『이순신』을 연상시키는 과거 퇴행적이며 국수적인 시도와 노력으로 비춰질 뿐이었다.

이광수의 『단종애사』와 『이순신』을 부정적 대타항으로 한 박종화의 민족문학에 대한 반박은 찬반으로 양극화된 분열과 대립을 가속화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임진란’과 이순신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가장 대중적이고 호소력 있는 역사적 사건과 인물 역시나 현재의 이념을 대리하는 첨예한 헤게모니 쟁투의 대상으로 ‘민족문제’화되었다. 역사소설의 시대착오를 넘어서는 상반된 이념의 각축장으로 변모한 ‘임진란’과 이순신이 지닌 문제성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전쟁이 종식된 직후인 1954년 9월 14일부터 1957년 4월 18일까지 근 3여년에 걸쳐 『조선일보』에 연재된 박종화의 『임진왜란』은 전쟁 직후라는 시대상황과 맞물려 그 존재의미를 되찾기에 충분하다. 독자들의 열렬한 성원과 호응 속에서 이 작품은 이광수의 『이순신』을 상기시키는 한편으로 그의 민족문학의 구원체로 자리잡게 되는데, 이어질 3장은 당대적 문맥과 조건을 참조한 맥락읽기의 관점에서 박종화의 『임진왜란』이 지닌 역사소설과 민족문학의 문제적 상관성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다.

명선의 「민족문학과 민족주의문학」은 그의 좌익 성향을 말해주는 예증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명선의 행적에 대해서는 김성칠, 정병준 해제, 『역사 앞에서』, 창비, 2009, 447쪽이 비교적 자세하다. 그가 언제 사망했는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 단지 추정만 가능하다. 이명선의 월북과 이광수의 피랍(납북)이 지닌 이 어긋남은 한반도의 비극적 단면이기도 할 것이다.

3. '임진란'의 변주와 역사소설의 현재적 이념정치

박종화의 『임진왜란』을 검토하기 전에 우선 서지 사항을 살펴보면, 근 3여년의 시간 동안 연재되다보니 현재까지도 출처가 잘못 기재된 경우가 많다. 『임진왜란』의 연재가 4월과 5월에 시작되었다는 견해에서부터 가장 근사하게 9월 13일에 시작되었다는 주장까지 다양하다. 9월 13일에 첫 연재를 시작했다는 착오는 『조선일보』의 「다음 연재소설 예고」에서 비롯되었을 소지가 크다. 왜냐하면 『조선일보』는 1954년 9월 9일자 「예고」를 통해 박종화의 「임진왜란」이 “13일자부터 게재”될 것임을 대대적으로 알렸기 때문이다. 몇 차례의 「예고」 끝에 『조선일보』는 다음 연재소설이 “우리문단에 독보의 경지를 이루는 한 분으로 『금삼의 피』 『대춘부』 『민족』 『홍경래』 등 여러 역작을 내어놓아 아직도 천하의 독서자의 기억에 새로운 바 있는” “박종화의 『임진왜란(壬辰倭亂)』을 13일자부터 연재하게 되”었음을 발표했다. 이 「예고」로 인해 9월 13일 박종화의 『임진왜란』이 첫 지면을 뒀을 것이라는 착오가 생겨났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4월과 5월에 첫 연재를 시작했다는 오류는 어디서부터 연유하는지 추정키 어렵다.¹⁷⁾ 박종화의 『임진왜란』은 신문사의 사정도 겹쳐졌겠지만 9월 14일 2면으로 축소 발행된 『조선일보』 2면 하단의 「서설(序說)」로 첫 회를 시작했다. 「서설」이 신문연재소설의 첫 회 전부를 차지하는 이례적인 면모를 선보이며, 박종화는 자신의 『임진왜란』을 현재를 담아내는 통로로 삼는다.

그는 「작자의 말」에서 “외적의 침입을 받아 국토가 초토화(焦土化)”되고 “거레 모두가 난리 속에 휩쓸린 지 햇수로 또 다섯 해, 지금 우리의 조국통일은 무엇보다 가장 급하다”는 작금의 현실을 환기한다. “조국통일! 조국통일은 어떠하였던가 삼가 독자 제위의 편달을 바라는 바”라는 『임진왜란』의 방향성을 함

17) 월탄 박종화 탄신 100주년 기념문집 간행위원회 편, 『박종화의 문학과 사상』, 범우사, 2001, 172쪽은 박종화의 『임진왜란』이 5월에 처음 연재되었다고 적고 있다. 박종화의 기념문집인 만큼 이 오류는 아쉬운 측면이다. 윤병로의 『박종화의 삶과 문학』, 2001, 305쪽도 박종화의 『임진왜란』을 5월로 적시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축하는 이 『작자의 말』은 조국통일과 연관된 이야기들이 전체 작품을 통어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고조시킨다. 『작자의 말』은 첫 회 지면의 『서설』을 통해서 재확인되고 있는데, “삼백 육십여 년 전에 우리 조상이 겪은 『임진왜란』은 삼백 육십여 년 뒤 오늘날 우리들이 모두 당하고 겪은 비참한 전쟁 『한국의 동란』과 방불”하다는 유비 관계의 설정이 그것이었다.

삼백 육십여 년의 시간적 격차를 띤 임진왜란과 한국동란은 임진왜란이 “왜놈들이 삼천리강도를 짓밟”은 것이라면, 오늘날 한국동란은 “동북의 오랑캐 쏘련이 북한 괴뢰와 중공(中共) 호적을 앞잡이 세워 붉은 사조(思潮)로써 침략의 총뿌리를 의장(擬裝)”하여 “진흙발길을 내디디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삼백 육십여 년의 시간적 격차가 무색하리만큼 임진왜란과 한국동란은 닮은꼴을 이룬다는 주장이다. 이 예외적 상동성이 『작자의 말』에서 피력한 조국통일과 임진왜란의 상호 접점을 형성케 하는 근거로 작동한다. 이처럼 『작자의 말』과 첫 회 『서설』은 모두 박종화의 『임진왜란』에 대한 독자의 특정한 읽기를 유도하며, 『임진왜란』을 현재 상황을 반추하는 거울상으로 삼게 했다. 박종화의 『임진왜란』이 실제로 3여년의 긴 연재 기간 동안 이를 일관되게 관철했느냐의 여부와 무관하게 현재의 이념과 시각을 실어 나르는 창구로 기능하게 되는 이유이다.¹⁸⁾ 그때 “예술 지상주의 작품이라 할지라도 인생과 인류를 떠나서는 무의미한 일”¹⁹⁾이라고 하는 그의 보편적 휴머니즘은 “간사함과 악한 행동으로써

18) 박종화의 『임진왜란』은 신문연재소설이라는 제약과 특성으로 인해 한 회 분량의 일화적 이야기 구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작품상의 특징은 일관된 주제의식을 이끌어내는 데 아무래도 무리가 따른다. 하지만 명나라 원군에 대한 작가의 달라지는 태도는 휴전협정을 반영한 긍정과 부정을 오가는 양상을 드러낸다. 한 예로 서술의 도입부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조선 철병에 지대한 공을 세웠던 홍순언(홍통사)은 이후 그를 뒷받침했던 명나라 병부상서 석성의 약화되는 비중과 함께 어느 사이 작품에서 사라지고 만다. 명나라 장수와 병사들에 대한 이 같은 이중적 서술 태도는 현재적 이념과 욕망이 투사된 결과로 꼽을 만하다. 한편으로 미군(유엔군) 참전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다른 한편으로 한국민의 의사를 배반한 휴전협정 체결이 명나라 원군과 병사들로 이월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기 때문이다.

19) 『다음 연재소설 예고, 월탄 박종화·행인(杏仁) 이승만 화 임진왜란 13일자부터 게재』, 『조선일보』, 1954.9.9.

무수한 사람을 죽였다면 만대(萬代) 인류사(人類史)의 필주(筆誅)를 면하지 못할 것”²⁰⁾이라는 지극히 익숙한 선·악의 대중문법을 동반하며, 이를 옳고 그름의 이념 영역으로 언제든 전화될 수 있는 여지를 또한 남기게 된다.

조국과 등치된 ‘민족’ 개념의 확장으로서 이 인류의 분절과 분할은 1950년 1월 『신천지』의 『신년사』에서 이미 예고되었던 바이기도 하다. 그는 남로당의 게릴라 활동을 비판하면서, 이들을 “동족이면서 동포 아니라”²¹⁾는 말로 동족≠동포를 구분했기 때문이다. 그에 따르면, 동족은 동포를 포함하는 개념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균질하지는 않다. 아무리 피를 나눈 동족이라고 해도 조국을 등지는 반란자가 되는 순간, 동족일망정 동포의 범주에는 속하지 않는 방외자(方外者)에 다름없다는 논리의 변주였다. 따라서 소위 동포로 분류된 동족만이 우리의 내집단으로 존속할 가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류도 선한 우리 진영의 사람들에 한해서 지켜질 가치가 있었다. 동족과 동포 나아가 인류와 선한 인류간의 이러한 차별화가 『임진왜란』을 선규정하며, 그가 그리는 소설 속 인물과 사건을 틀 짓게 된다. 그는 ‘임진란’과 이순신이라는 가장 대중적인 역사 소재에 한국동란을 대입시킴으로써 현재를 그야말로 과거에 투사하는 한편 이를 선한 인류와 악한 인류로 범주화했던 것이다. ‘임진란’의 극적인 무대를 중심으로 펼쳐진 박종화의 『임진왜란』은 이광수의 『이순신』과 동일한 시대와 공간을 공유하면서도, 이광수의 『이순신』과 달리 수많은 인물과 사건들을 명멸하는 속에서 누가 참된 인류인지를 전범화하고자 했다. 이는 곧 그가 말하는 진정한 민족문학의 구현자이기도 할 터, 선한 인성과 절의의 결정체로서 충무공 이순신과 논개가 각기 남녀를 대표하는 형상으로 재구축될 터였다.

‘임진란’은 박종화의 민족문학에서 중요한 원천이자 화소였음에 틀림없다. 그는 역사소설을 처음 쓰게 된 동기를 묻는 질문에 “임진의 사실을 처음으로 읽었을 때” “이것을 소설로써 써보았으면 하는 충동을 느꼈다”고 밝힐 정도로 ‘임진란’에 대한 애착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더하여 그는 이것이 “일제하의 일

20) 박종화, 『임진왜란 (1)-서설』, 『조선일보』, 1954.9.14.

21) 박종화, 『신년사-득민심(得民心)』, 『신천지』, 1950.1., 6쪽.

이라 여간 곤란” 아니 “불가능”했음을 강조하며, “민족적 수난이란 점에서는 동일한 병자호란을 소설화하기로 해본 것이 『대춘부』²²⁾였음을 피력하기도 했다. 즉 일제 식민통치 하의 시대적 요건으로 말미암아 그는 ‘임진란’을 대신해 병자호란의 『대춘부』를 썼다는 것이며, 그의 심중에 별도로 자리하고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임진란’이었다는 뜻이다. ‘임진란’에 대한 그의 오랜 열망과 욕구를 엿볼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따라서 그가 표방한 대로라면, ‘임진란’을 무대로 한 『임진왜란』은 훨씬 이전에 쓰였어야 했지만 1954년에 이르러 비로소 빛을 보게 된 셈이었다. 그의 오랜 숙원만큼이나 『임진왜란』의 방대한 부피감은 연재 마감과 동시에 광종원의 논평으로 인해 더욱 빛을 발하게 된다.

광종원은 「민족문화의 대표적 샘플, 『임진왜란』의 마지막 회를 읽고」를 1, 2회에 걸쳐 실는 방식으로 『임진왜란』에 대해 아낌없는 상찬을 보냈다. 총 946회에 이르는 『임진왜란』의 열렬한 애독자임을 자처하며, 그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기에는 『임거정(林巨正)』이 가장 긴 장편으로 알아왔지마는 이 『임진왜란』에 비할 바 못 되고 일찍이 타에 유례가 없었던 양의 방대함을 과시”했다는 것이었다. 홍명희의 『임격정』과 비교하는 이 심사의 저변에는 월북한 홍명희의 『임격정』을 압도하는 남한의 역사소설에 대한 그 나름의 기대와 요구가 깔려 있었다. 이것이 ‘임진란’이라는 거대한 시대사적 격변을 배경으로 박종화의 『임진왜란』에 대한 자부심으로 표출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역사적인 사실에 충실한 그만큼 당시의 사정과 오늘날의 현실을 대조·비교하는데 진진(津津)한 흥미를 끌”게 하여 “민족의식을 이토록 양양시킨 작품이 과거에 없었던 만큼 민족문학²³⁾으로서도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는 그의 고평은 역사소설의 측면

22) 「역사소설은 민족정신 발양의 모체, 문단의 거장 박종화 씨 방문기」, 『민중일보』, 1947.10.19. 이와 유사한 언급은 「월탄 박종화 선생을 모시고」, 『문학정신』, 1949.4., 45쪽에서도 찾을 수 있다. 그는 문학정신 동인과 가진 좌담회에서 “첫 작품으로 가장 정력을 들인 것은 『금삼의 피』이고 다음으로는 임진왜란의 민족의 수난을 작품화하고 싶었”지만 “왜정(倭政) 하라 뜻을 못 이루고 병자호란을 통해서 민족의 정치를 민중에게 알리고자 한 것”이 『대춘부』였음을 밝히고 있다.

23) 광종원, 「민족문학의 대표적 샘플, 『임진왜란』의 마지막 회를 읽고 (상)」, 『조선일보』, 1957.4.23.

에서뿐만 아니라 진정한 민족문학의 보고로 『임진왜란』을 위치시키는 것이었다. “임란 당시의 당쟁의 모습과 그 당쟁으로 인한 진정한 애국자들의 희생당하는 면모들을 그대로 묘사하여 오늘날의 우리 현실을 비취보고 깨우침이 있도록 사실을 중시”하는 역사소설이자 “민족을 망치는 길이 어떤 행동이며 민족을 흥왕케 하는 길이 어느 길인지”를 밝혀주는 이른바 “민족문학이라는 이름으로 금자탑을 쌓아올린 하나의 대표적 샘플”²⁴⁾이라는 이중의 상찬이 당시 『임진왜란』을 교차했음을 드러내는 언술이다.

총 946회의 긴 연재가 이어지는 동안 1955년, 단기 4288년 6월 제 1권을 필두로 1958년, 단기 4291년 10월 제 6권까지 전 6권의 『임진왜란』이 을유문화사에서 출간되었다.²⁵⁾ 연재와 거의 동시적이라고 할 만큼 발 빠른 움직임이었다. 연재시의 인기에 편승하고자 했던 출판사의 전략이 주효해서인지 전 6권의 『임진왜란』도 장기 베스트셀러로 이름을 올렸다. 이때를 즈음해 이광수의 『이순신』 또한 1948년 영창서관 판본에 신구문화사 총판으로 1953년에 재출간되었는데, 이는 『임진왜란』이 연재된 1954년과 불과 1여년 상간이었다.²⁶⁾ 한쪽은 ‘임진란’의 최고 영웅인 이순신을 전경화한 것이라면, 『임진왜란』은 이순신이 주요 등장인물이기는 하지만 다른 인물과 사건들이 총횡하는 가운데 그만이 오롯이 부각되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차이가 있다.

24) 곽종원, 「민족문학의 대표적 샘플, 『임진왜란』의 마지막 회를 읽고 (하)」, 『조선일보』, 1957.4.24.

25) 을유문화사의 『임진왜란』 1권은 1955(단기 4288)년 6월 15일 초판을 발행하고 1957(단기 4290)년 7월 25일 재판이 발행되었다. 이후 2권은 1955년 12월에, 3권은 1956(단기 4289)년 10월에, 4권은 1957(단기 4290)년 6월에, 5권은 1958(단기 4291)년 1월에 마지막으로 6권은 1958(단기 4291)년 10월에 간행되었다. 1955년 1권을 시작으로 1958년까지 간행된 셈이다. 여기에 대한 서지가 명확하지 않아 굳이 각주로 서지 사항을 정리해놓은 것이다.

26) 1953년 신구문화사가 총판한 이광수의 『이순신』은 1948년 영창서관에서 펴낸 것을 재간행한 것이었다. 1953년과 1954년 1여년 상간으로 『이순신』과 『임진왜란』이 간행되거나 연재됨으로써 전후 한국사회에 또 한 번 이순신 붐을 일으키는 데 일조했다. 박종화가 『이순신』보다 『단종애사』를 역사소설의 백미로 꼽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가 이광수의 『이순신』을 무시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를 우회하는 방법으로 그는 수많은 인물과 사건들을 등장시키며, 이광수의 『이순신』과 차별성을 꾀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이순신』과 『임진왜란』은 ‘임진란’과 이순신을 두 중심축으로 삼는 한, 서로 참조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임진왜란』은 1931년에 연재되어 이미 대중적 독물로 확고히 자리잡은 이광수의 『이순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있었다고 봐야 옳다. 이광수의 『이순신』을 우회하며 『임진왜란』은 ‘임진란’을 전후한 7-8년간의 인정세태를 그림으로써 불륨감을 키우지만, 아래의 인용문은 조선조의 당쟁과 대비되는 이순신의 충절이 변함없이 관철되고 있음을 증거하는 사례이다. 시기와 상황의 간극을 넘어 선악의 이분법이 소위 민족문학의 구성 원리로 내재화되는 한에 있어서 인물과 사건들은 이 자기 규정적 틀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조선조의 망국적 파쟁과 대조되는 의로운 인물간의 선명한 대비 구도는 민족문학의 스펙트럼을 형성하며, 소위 악한 자와 선한 자의 당대적 의미망을 재창출하게 되는 것이다.

1) 자기는 풀단지 한 그릇을 재상의 집에 바친 일이 없고 영광굴비 한 두름을 서인이나 동인한테 보낸 일이 없다. 당파와 파당은 나라를 망치고 겨레를 결판 내는 것을 자기는 잘 알고 있는 때문이었다. 당파를 가진 이 사람들은 나라의 근본대책을 세우기 위하여 정파나 파당을 이룬 것이 아니었다. 일가족속을 살리고 자기의 제자를 살리고, 나라의 벼슬과 제도를 혼자서만 독차지하기 위하여 당파를 모으고 정파를 세운 것이었다……이 사람들이 진실로 나라를 위하는 생각만이 머릿속에 있었다면 오늘의 나라 형편은 이 풀이 되지 않았을 것이 분명했다……자기의 조국이 위태로와야 이 (죽음의) 의분이 일어나는 것이요, 피를 같이 한 자기의 동족이 죽는 것을 보아야 이 의분이 일어나는 것이요, 조상의 해골이 묻힌 자기의 향토가 적의 발길에 유린이 되어야만 이 결사의 정신은 일어나는 것이다(방점은 필자)……이순신 장군은 가만이 눈을 감아 자기의 앞일을 바라본다. 자기의 앞에는 다만 왜적을 쳐부수고 죽는 일 한 가지가 남아 있을 뿐이라 생각했다. 나라의 원수를 갚고, 겨레의 원소를 갚고, 아들의 원수를 갚기 위하여 왜적을 쳐부수고 조용히 죽는 이 길밖에 자신 앞에는 아무 다른 길이 없

다고 생각했다.²⁷⁾

2) 그 동안에 순신은 군사를 교련하고 배를 수리하고 군기를 준비하고 기다렸던 것이다. 이 동안에 정희 용인(龍仁), 경성(京城), 임진(臨津)에서 조선군이 연전연패라기 보다는 부전자패하고, 전라도 순찰사 이광(李光), 도원수 김명원(金命元) 등이 달아나기 경쟁을 하며 왕과 그의 종신들은 또 싸우며 또 달아나는 동안이었다(여기 싸운다는 것은 적군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동인, 서인의 당과 싸움을 한다는 것이었다). 전국의 힘이 다 무너지고 왕과 그의 신하들이 모두 혼비백산하여 오직 다른 나라(명나라)에 백배 천배로 구원을 애걸하고 있을 때에 아랫녘 한 구석의 미관말직을 가진 일개 수사 이순신이 홀로 삼천리 조국을 두 어깨에 메고 조정에서는 알아주지도 않는 싸움의 길을 떠나는 것이다……백운산(白雲山) 등 하늘에 닿은 웅장한 자태를 바라보며 이 아름답고 웅장한 강산에 주인이 없음을 한탄하였다. 실로 일국의 운명을 두 어깨에 지기에는 순신은 너무도 하잘 것이 없는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다. 오직 하늘에 너무 나라를 위하는 충성, 목숨보다 자기의 맡은 사명을 더 중히 여기는 책임감, 하늘이 무너져 덮더라도 까딱없는 용기 - 이것이 순신으로 하여금 이 길을 떠나게 한 것이었다.(방점은 필자)²⁸⁾

조선조의 망국적인 당쟁과 거기에 눈 먼 조정 신하들 그리고 무기력한 왕과 달리 이순신은 오직 충절로 목숨을 건 전투에 나선다. 그의 이러한 행위가 1)의 인용문처럼 조국과 동포의 귀속성을 바탕으로 당연한 것이 되는 순간, 나머지 인물들은 자연히 그에 모자라는 결핍의 형상을 덧쓸 수밖에 없다. 어찌 보면 충절의 순도차라 해도 과언이 아닐 피의 정결성이 『임진왜란』의 인물과 사

27) 박종화, 『임진왜란』, 을유문화사, 1966, 476-478쪽. 위 인용문은 1955-58년 전 6권의 『임진왜란』을 3권으로 압축한 1966년도 판본이다. 을유문화사에서 밝혔듯이 독자들의 형편을 고려해 6권을 3권으로 압축한 만큼 표기상에서 일부 현대어로 고친 외에 내용상의 차이는 없다. 긴 분량을 감안해 필자는 이 판본을 저본으로 인용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28) 이광수, 『이순신』, 영창서관, 1953, 247-248쪽.

건 구성을 견인한다. 이는 “논개와 황진의 맥박에는 순수한 조선 사람의 피가 끓었고 조선 사람의 영혼이 울”었던 데 반해 “조선 사람의 피가 쉬었다는 이여송 · 이여백 · 이여매 · 이여장의 피와 영혼이 한국을 위하여 뛰고 울지 못했으니 더욱이 그 나머지 중국의 남병과 북병들의 피야 말할 거리도 없다”(3, 76)는 피(혈통)의 계층화가 생겨나는 원인이다. 피(혈통)의 순결성을 척도로 한 순도 및 거리차가 이순신을 정점으로 각 에피소드의 한축을 차지하는 의병들과 그 나머지 인물들을 구분하는 식이었다. 이 일련의 종별화는 박종화가 설과한 동족과 동포 간, 인류와 선한 인류 간의 구획과 합치되어 그의 민족문학이 선 자리를 일깨워주고 있다. 박종화의 『임진왜란』이 『이순신』의 인물 구성과 형상화를 반복하게 되는 지점도 여기일 터, 조선조의 장처와 단처에서 그 단처를 가장 적게 지닌 순수성의 결정체로서 이순신은 이 민족의 귀속성과 피의 정결성에서 가장 정점에 있는 이순신과 중첩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²⁹⁾ 박종화의 『임진왜란』은 이광수의 『이순신』에서 형상화한 이순신의 충절에 피의 순도를 더함으로써 진정한 민족문학의 전범으로 ‘이순신’을 재정위하게 된다. ‘이순신’이 박종화가 이야기한 진정한 민족문학의 계보화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박종화는 기존의 민족문학과 민족주의문학을 동일시해왔던 태도를 벗어나 1959년 민족문학과 민족주의문학을 나누는 「민족과 문학」을 『동아일보』에 발표했다. 1946년 「민족문학의 원리」와 맥을 같이하면서도 이 글은 민족문학과 민족주의문학을 일체화한 이전의 논법과는 다르게 민족주의문학을 민족문학의 일부로 포함시키는 변모를 드러냈다. 민족주의문학=민족문학의 공식이 민

29) 이광수의 『민족개조론』에서 이야기된 조선민족의 장처와 단처에 기대어 이순신의 영웅화가 이루어졌음을 필자의 책인 『식민지의 적자들』(푸른역사, 2005)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순신은 조선민족의 악(惡) 성격을 가장 많이 체현하고 있는 지배계급과 악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악정을 행하지 않음으로써 순박한 일면도 포함하는 일반 백성의 사이에서, 악 성격을 가장 적게 지닌 극소수의 선인으로 표상되었다. 이를테면 오직 이순신만이 “전라도 마저 적의 손에 들어가면 조선의 강토는 하나도 남지 못”한다는 비장한 각오로 “죽기로서 전라도를 지키고 적의 수군이 전라도 앞바다를 지나지 못하게 하”리라는 충절의 권화로 형상화된 것이다.

족주의문학<민족문학으로 그 함의를 달리했던 것인데, 이 구분의 효과는 민족주의문학을 민족문학의 결정체로 만들려는 그의 의도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즉 민족주의문학이 자연발생적인 “지역과 역사와 언어와 혈연과 풍속과 운명을 같이 한 한 덩어리의 민족이 언어와 연륜이 흐르고 붙는 동안 그 풍토 위에 모든 문명과 함께 자기도 모르는 곁에 피어진 꽃들”이라면, 민족주의문학은 이 “연면한 민족의 역사 속에서 한 시대 한 민족의 불행했던 시기를 계기로 해서 이루어진 하나의 위대한 민족의 저항문학이요, 반성문학이요, 계몽문학”이라는 충실성과 순도가 가미된 것이었다. 민족문학은 이 땅과 피와 문화를 공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공통의 것이라면, 민족주의문학은 저항과 반성과 계몽의 불순물을 걸러낸 순수 증류수여야 한다는 변주와 재구성이었다.

민족문학과 민족주의문학을 구분한 위에서 그는 “강렬한 민족주의사상을 의식적으로 고취시켜서 북”돋아준 “한용운 선사의 『임의 침묵』, 상화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든지 춘원의 초기소설 『무정』 『흙』 『마의태자』 『단종애사』라든가 육당의 『소년』 잡지시대의 모든 신체시와 기행문과 수필” 등이 모두 “민족주의문학의 범주 속에 들 것”³⁰⁾임을 주장했다. 민족문학의 외연 아래 그 중핵이 되고 있는 민족주의문학은 1962년 이광수전집의 편집위원으로 그가 『단종애사』를 필두로 이광수의 역사소설을 민족문학의 견지에서 고평했던 움직임과도 연쇄적인 흐름을 이룬다. 이광수 복권에 대한 그의 적극적인 움직임과 맞물려 민족주의문학에 대한 그의 환기는 “나는 검열이 허하는 한” “우리 민족의 전통적 정신과 영광과 애국심과 민족의식을 그려서 천황만세를 부르고 황국신민서사를 제창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운명에 있는 동포들에게 보낸 것”이라는 『원효대사』는 물론 “<무정> 이하로 <마의태자>나 <이순신>이나 또 <재생> · <그 여자의 일생>이나 무릇 내가 쓴 소설은 민족정신 밀수입의 포장으로 썼”³¹⁾다는 이광수의 발언과도 공명하는 것이었다. “민족정신 밀수입의

30) 박종화, 「민족과 문학」, 『동아일보』, 1959.8.15.

31) 이광수, 「나의 고백」, 『이광수전집』 7, 우신사, 1979, 283쪽.

포장”으로 역사소설에 대한 재가치화는 박종화의 “민족정신을 고취시키는 모체”로서 역사소설이 지닌 민족(주의)문학과 접속되며, 그렇게 박종화의 『임진왜란』과 이광수의 『이순신』을 마주보게 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4. 역사소설의 변치 않은 대중적 호소력과 과거 해석 및 전유의 욕망들 -결론을 대신하며

박종화는 이광수의 『이순신』보다는 『단종애사』와 『마의태자』를 역사소설의 정수로 간주했다. 『임진왜란』과 시기와 인물이 겹쳐지는 『이순신』에 대한 그의 언급을 의외로 찾기 힘든 이유이다. 그가 『민족문학의 원리』에서 민족혼과 민족의식의 고양을 위해 충무공에 관한 소설을 짓자고 주장했던 것을 떠올리면, 이 드문 발언이 지닌 (무)의식은 눈길을 끈다. 그럼에도 “공명·정대·지성·근면·자자(孜孜)·끈기·노력·침묵·장중 등 모든 열성이 쌓이고 정열이 쌓여서 저 임진 칠년 대 전패 속에서 홀로 남해 바다를 가로막아서 적으로 하여금 마침내는 굴복하고 돌아가지 아니하면 아니 되게 되는 단계를 만들었으니 일해탱천(一海撐天)하는 공의 위업은 임진란의 최후전(最後戰)”과 함께 “자기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자아를 완성한 거룩한 한 인간”³²⁾이었음을 강조한 1956년의 「인간 충무공」은 임진란과 이순신에 대한 그의 깊은 관심과 천착을 보여주고도 남음이 있다.

이처럼 임진란과 이순신은 과거 역사의 특정한 시계열화를 창출하는 중심 소재이자 대상이었다. 식민지시기를 거쳐 해방 이후 이순신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들과 한국전쟁 및 뒤이은 박정희정권의 성역화까지 과거를 전유하고자 하는 현재적 욕망과 회구가 각 시대를 특징짓는 역사적 ‘장면(scene)’들을 만들어 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역사소설은 가장 친숙하고 대중적으로 과거를 독자

32) 박종화, 「인간 충무공 상(上)」, 『동아일보』, 1956.4.27.

들의 눈앞에 펼쳐놓음으로써 이 가교 역할을 톡톡히 수행했다. 이는 역사소설이 과거를 현재화하는 창구이자 더 중요하게는 이념화의 통로로 기능해왔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박종화와 이광수라는 두 대표적인 역사소설가의 행보는 역사소설의 위상뿐만 아니라 그것이 당대 사회와 맺는 긴밀한 연관성을 숙고하게끔 한다. 이 글은 ‘임진란’의 시대사적 격변을 무대로 이들이 말하고자 했던 민족과 민족문학의 문제성을 되짚는 한편 이를 반성적으로 성찰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데이비드 로웬달(David Lowenthal)이 ‘과거는 낯선 나라다’라고 했던 바의 과거에 대한 전유와 재구성은 곧 현재적 욕망의 반영이자 그 투사라는 점을 이 글을 갈음하는 말로 삼고 싶다.³³⁾

33) 데이비드 로웬달(David Lowenthal), 김종원·한명숙 옮김, 『과거는 낯선 나라다』, 개마고원, 2006.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김성칠, 정병준 해제, 『역사 앞에서』, 창비, 2009.
- 곽중원, 「민족문학의 대표적 샘플, 「임진왜란」의 마지막 회를 읽고」, 『조선일보』, 1957.4.23-24.
- 박종화, 「민족문학의 원리」, 『경향신문』, 1946.12.5.
- _____, 「조선문학의 현 단계」, 『민주일보』, 1947.1.4.
- _____, 「신년사-득민심(得民心)」, 『신천지』, 1950.1.
- _____, 「「백조」 시대와 그 전야」, 『신천지』, 1954.2.
- _____, 「임진왜란 (1)-서설」, 『조선일보』, 1954.9.14.
- _____, 「인간 충무공 상(上)」, 『동아일보』, 1956.4.27.
- _____, 『임진왜란』 1-6, 을유문화사, 1955-1958.
- _____, 「민족과 문학」, 『동아일보』, 1959.8.15.
- _____, 「작품해설」, 『이광수전집 5』, 삼중당, 1962.
- _____, 『임진왜란』 1-3, 을유문화사, 1966.
- _____, 「서설」, 『월탄 박종화문학전집 6-민족·청춘승리』, 삼경출판사, 1980.
- 이광수, 『이순신』, 영창서관, 1953.
- _____, 「나는 독립국 자유민이다」, 『이광수전집』 9, 우신사, 1979.
- _____, 「나의 고백」, 『이광수전집』 7, 우신사, 1979.
- 이명선, 「민족문학과 민족주의문학」, 『신조선』 2, 1947.
- 그 외 『민중일보』, 『조선일보』, 『중앙신문』, 『주간서울』 등을 참조.

2. 논저

- 공임순, 『식민지의 적자들』, 푸른역사, 2005.
- _____, 「냉전의 육화, 스파이의 비/가시적 신체 형상과 「최초」의 소재/미제 간첩단 사

- 건, 『한국문학의 연구』 55, 2015, 507-563쪽.
- _____, 『이광수 복권과 문학사 기술의 관련 양상』, 『춘원연구학보』 9, 2016, 191-22쪽.
- _____, 『박종화와 김동리의 자리, “반탁운동의 후예들”과 한국의 우파 문단』, 『사학연구』 121, 2016, 41-79쪽.
- 김휘열, 『해방기 『문화시보』의 매체적 위치와 의미연구』, 『반교어문연구』 41, 2015, 483-510쪽.
- 월탄 박종화 탄신 100주년 기념문집 간행위원회 편, 『박종화의 문학과 사상』, 범우사, 2001.
- 윤병로, 『박종화의 삶과 문학』, 한국학술정보, 2001.
- 데이비드 로웬달(David Lowenthal), 김종원 · 한명숙 옮김, 『과거는 낯선 나라다』, 개마고원, 2006.
- 시오카와 노부아키(塩川伸明), 송석원 옮김, 『민족과 네이션』, 이담, 2015.

■ Abstract

Park Jong-hwa and Kwangsoo Lee, the War of Imjin(임진란) and Historical novels

Kong, Im-soon

This paper firstly paid attention to the role of Park Jong-hwa as a basis to compare and analyze Park Jong-hwa and Kwangsoo Lee. Because Park Jong-hwa not only played a bridge role in Kwangsoo Lee's reinstatement, but also supported it by the re-valuation of historical novels. The crucial scene in 1956 when the kidnapping issue was raised and Kwangsoo Lee emerged as a symbol of anti-communism led the literary men who were passive Kwangsoo Lee's reinstatement in until then. This fruit is the 'Kwangsoo Lee's Complete Works' published in 1962 by Samjungdang. Park Jong Hwa participated in the editorial committee to play a leading role in Kwangsoo Lee's reinstatement by criticizing his historical novels in terms of national literatur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larify the problematic correlation between Park Jong-hwa's 'national literature' and historical novels, which is a way of redeeming the defects of human 'Kwangsoo Lee and saving the author.

For this purpose, this paper examined in chapter 2 that the national literature of Park Jong-hwa had been the site of constant restructuring of the national problem. In this process, 『Imjinwaaran(임진왜란)』 which was published shortly after the end of the Korean War became the focus of discussion. Referring to his comment that his first step as a historical novelist was the war of Imjin(임진란), 『Imjinwaaran(임진왜란)』 is enough to be a major reference to consider the problematic relationship between national literature and historical novels. Through the analysis of Chapter 2, this paper discussed in detail in Chapter 3 how a particular time

series of the war of Imjin(임진란) which he invoked worked as the current ideological politics of historical novels. Park Jong-hwa's 『Imjinwaaran(임진왜란』 been linked with Kwangsoo Lee' 『Yi Sun-Sin(이순신)』 for over three years reveals that historical novels is not a representation of the timeless tradition or history but the projection and reflection of our present desire. This is the conclusion of Chapter 4 of this paper.

Key words: Park Jong-hwa, reinstatement of Kwangsoo Lee, national problem, national Literature, historical novel, the war of Imjin(임진란), 『Imjinwaeran(임진왜란)』, 『Yi Sun-Sin(이순신)』, current ideological politics

접수일: 2018년 6월 6일

심사일: 2018년 6월 20일

게재확정일: 2018년 6월 25일